

아동 놀 권리 보장 · 맘껏 뛰어노는 환경 조성 최선

전주시, 야호학교서 아동 · 놀이전문가 등과 '놀이터도시 전주 포럼' 개최

아이들이 맘껏 떠돌고 뛰어 노는 놀이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네 골목길을 아이들에게 돌려 주고 학교에서도 30분 이상의 놀이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는 아이들의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는 29일 야호학교에서 아동과 놀이공동체, 놀이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 놀이터도시 전주 포럼'을 개최했다.

전주시는 29일 야호학교에서 아동과 놀이공동체, 놀이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 놀이터도시 전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를 허용하는 사회적 공감대와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지난 5월에 이어 2번째로 열렸다.

포럼에는 서곡초등학교 문경준, 김기운 학생과 만성초등학교 심채운 학생, 장동초등학교 송도협 학생이 발표자로 참여해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문경준, 김기운 학생은 "놀이터와 골목길에서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 달라"면서 "특히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을 막는 등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심채운 학생은 "학교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밖에 없었는데 코로나19 이후 그 시간조차 줄었다"며 "학교에서 매일 최소 30분 이상 놀이 시간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도협 학생은 "우리가 맘 놓고 놀 수 있는 마을 도서관에 장난감, 보드게임, 레고 등을 비치해주고, 만

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달라"고 했다.

놀이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아동기 놀이의 가치와 놀이환경 조성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놀이를 교육적 도구로 인식하거나 놀이의 돌봄 기능에 중점을 두지 않고 놀이 그 자체로서의 기본적인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며 "안전한 놀이 공간과 지속적인 놀이 시간을 확보하고 누구나 공평한 놀이 기회가 제공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일 전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은 "놀이를 공부와 시험에 방해하는 요소로 치부하고 놀이를 추방한다

면 큰 비극"이라며 "2, 3교시 사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을 활용한 전통놀이, 스포츠형 놀이, 보드게임 등을 진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병희 모두학교 교장은 '함께 놀아 단단한 아이들'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아이들과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양육하는 공동양육마을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김순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과 선홍진 전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회도 펼쳐졌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놀이터

도시 전주, 놀이의 다양성으로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놀이터도시 전주 포럼'을 개최했다. 이후 시는 노송광장에 바구니그네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아동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모든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면서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고 다들 맘껏 뛰어놀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전주시 LIVE'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윤상 기자

'뉴딜, 전주의 미래를 그린다'

시, 지역 특성 맞는 뉴딜사업 시민과 추진 위해 아이디어 공모

전주시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 발맞춰 메타버스, 탄소중립, 청년정책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나선다.

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뉴딜, 전주의 미래를 그린다(GREEN+Digital newdeal)'라는 주제의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모집분야는 ▲메타버스 등 관련 사업(디지털뉴딜) ▲탄소중립 관련 사업(그린뉴딜) ▲청년정책 관련 사업(후만뉴딜) 등 3개다. 배달앱이나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 청년매입임대주택 등이 일례가 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참여자격은 공고일(7월 28일) 기준 전주에 주소를 둔 시민과 전북권 소재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참가신청서

와 사업 설명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THINKHIGH89@korea.kr)로 제출하거나 전주시 뉴딜추진단(완산구 노송광장로 10, 2층)으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또 전주시 홈페이지 내 공모제안 코너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연관성, 창의성, 실행 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한 뒤 우수상(1명), 장려상(1명), 노력상(2명)을 선정하고 대상자에 은누리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소중한 아이디어는 전주의 미래를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그려나가는 재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전주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 전북권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오 · 우수 분리 하수관로 정비

전주시, 악취 저감 · 수질 개선 등 위해 9월~내년 5월까지 추진

전주시내 악취 저감과 전수준 수질 개선 등을 위해 하수관로의 오수(더러운 물)와 우수(빗물)을 분리하는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종성)는 오는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국비 10억5000만 원 등 총사업비 20억 9200만 원을 투입해 완산구 서화로 및 서학3길 일원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구역은 동서학동 주민센터 앞길과 전주교대부설초등학교 뒤편으로,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은 합류식 하수관로가 매립돼있는 구간이다. 시는 0.93km 구간에 오수관로를 새롭게 매설해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로 개량하고, 72개 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하천 내 오수 유입과 악취 발생을 방지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하수처리장의 부하량을 저감하면서 전수준 수질을 좋게 만들어 새만금 목

표 수질 달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서학동 예술마을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해 이종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국비 15억 원 등 총사업비 22억 4400만 원을 들여 덕진구 조촌동 원동·탑동마을 일원에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성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생활오수를 하수처리시설에서 법정 수질 이하로 정화한 뒤 하수로 방류할 수 있게 돼 악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자전거보관대 일제정비

전주시가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자전거보관대 213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자전거보관대 일제점검'에 나선다.

시는 자전거보관대 파손 여부 등의

상태를 점검한 뒤 파손 정도에 따라 보수 또는 신규 재설치하고, 보관대 설치 장소의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해 부적합할 경우 이설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보관대 내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발견할 시에는 계고장을 부착하고 처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시 읽고 토론하는 '청소년 인문포럼' 개최

전주지역 청소년들이 시(詩)를 읽으며 함께 토론하는 장이 마련된다. 전주시가 다음 달 14일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2021 청소년 인문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인 이날 청소년 인문포럼은 '세상은 멀쩡한데 나는 아플 때 읽는 시'를 주제로 김춘수, 윤동주 등의 작품을 함께 읽으면서 시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에 대한 길잡이 강의로는 흥박승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가 참여한다. 청소년들은 ▲물류창고-이수명 ▲김윤동주 ▲그날-이성복 ▲오래된 서적-

기형도 ▲제36번 비가(悲歌)-김춘수 ▲물새 발자국 따라가다-손택수 ▲그복숭아나무 곁으로-나희덕 ▲겨울 강가에서-안도현 ▲장편(掌篇) 김중삼 등 총 9편의 시를 읽은 뒤 참여하게 된다.

희망자는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onju.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주시평생학습관(063-281-5367)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원 제한, 발열체크,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결혼이주여성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29일 결혼이주여성 15명과 함께 '소통과 인권'을 주제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및 폭력예방 대처 교육을 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의 후원을 통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센터는 인권침해 및 폭력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으며, 다양한 인권감수성 향상 방안 등도 설명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 22일 '세계 시민의 인권과 평화 교육'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다문화사회의 주요 이론과 사람 중심의 인권과 평화의 가치에 대

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런 교육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훈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바로 알고 인권과 관련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현숙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다문화 인식개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통합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